



# *Web Contents*

---



2024년 05월 05일 12시 45분



## 목포문학산책'낭독극장'운영 안내

2017.04.11 조희수 266 등록자 목포문학관

목포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연극배우가 낭독해주고, 전문가가 해설해주는 목포문학산책'낭독극장'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 2시 목포문학관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접수) 수강료 무료, 문학관 홈페이지 전시/교육- 교육신청하기

4월 22(토) 14:00 소설가 박화성

진행 유현(시조시인) 낭독 정권숙, 김선우 (극단 새결 배우)

낭독 작품 소설 「하수도공사」, 「혈어진 청년회관」

해설 최창근 (전남대학교수)

한국 최초의 여성 소설가인 박화성이 실제 목포를 배경으로 쓴 대표 작품

☒추석전야☒(1925년)로 문단에 데뷔한 후 소설만 쓴 본격적인 제1기 여성작가, 장편소설을 집필한 최초의 여성 작가. 초기 작품 ☒추석전야☒, ☒홍수전후☒, ☒혈어진 청년회관☒, 「고향 없는 사람들」은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쳤으며 1920~1930년대 남성작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식민지 현실을 정확하게 형상화했다.

목포문학산책 '낭독 극장' 일정표

4.22(박화성) 5.20(김우진) 6.17(김현)

7.15(김지하) 8.19(차범석) 9.16(최하림) 10.21(김진섭)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문화나눔

주관 : 목포시(목포문학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장소 : 목포문학관

세부사항은 붙임 리플릿 홍보물 참조...

10월 21일 (토)  
**김진섭**

- 낭독 작품  
「인생예찬」, 「생활인의 수필」
- 해설 : 김영진 (목포과학교수)

대표적으로는 <백성부>, <주부송>, <모순론>, <교양에 대하여>,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있다. 이 중 <수필의 문학적 영역>은 한국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생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 그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餘技) 정도라니 여겨졌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鼻祖)로 불린다.

**목포문학관**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장편소설을 집필한 최초의 여성작가 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한국 평론 문학의 독보적 존재 김현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4인 복합 문학관이다.

작가가 평생 동안 사용했던 유물들과 창작 활동을 한 옥빛전고, 작품집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체험관, 문학인사랑방, 문학창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문학관 주변으로 박화성, 김현 등 문인들의 문학비, 시화를 전시한 야외갤러리를 둘러 볼 수 있다.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과 함께 갖바위 문화터전에 위치하고 있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  
EXCITING ARTS TOUR

**목포문학산책  
낭독 극장**

4.22\_ 박화성 5.20\_ 김우진 6.17\_ 김 현  
7.15\_ 김지하 8.19\_ 차범석 9.16\_ 최하림  
10.21\_ 김진섭 매월 셋째주 토요일 2시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포시(목포문학관)  
주관: 목포시(목포문학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장소: 목포문학관

목포시 전남 목포시 남동로 95(올레동)  
Tel. 061\_270\_8400 Fax. 061\_270\_8413  
목포문학관 홈페이지 http://munhak.mokpo.go.kr

**목포문학산책 낭독 극장**  
14:00 진행 : 유현(시조시인) 낭독 : 정권숙, 김선우(극단 새길 배우)

**4월 22일 (토) 박화성**

● 낭독 작품  
소설 『하수도공사』, 『월어진 청년회관』  
실제 목포를 배경으로 쓴 대표 작품  
·해설 : 최장근 (전남대학교수)

(조선문단)에 '추석전야'(1925년)로 문단에 데뷔한 후 소설만 쓴 본격적인 제1기 여성작가, 장편소설을 집필한 최초의 여성 작가.  
초기 작품 『추석전야』, 『홍수전후』, 『월어진 청년회관』, 『고향 있는 사람들』은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쳤으며 1920-1930년대 낭성작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식민지 현실을 정확하게 형상화했다.

**5월 20일 (토) 김우진**

● 낭독 작품  
희곡 『이연녀』, 문학평론, 시 등  
·해설 : 김성진 (고구려대학교수)  
·노래 : 주화영 (고구려대학교수)

당시 기성문단을 탈빈 뛰어난 선구적 극작가.  
특히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험한 점에서 유일한 극작가였다. 해박한 식견과 외국어 실력, 선구적 비평안을 가지고 당대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평론가이며, 최초로 신극운동을 일으킨 연극운동가이다.

**6월 17일 (토) 김현**

● 낭독 작품  
『말들의 풍경』, 『행복한 책읽기』  
·해설 : 김형중 (조선대학교수)

한국 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 엄청난 독서량,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직물 분석,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드넓은 지적 관심, 열렬하고 아름다운 문체, 비평을 창작에 기생하는 장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최초의 비평가.  
독창적인 언어 세계를 보여준 그의 비평문체를 '김현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평론가'(시인 황지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대의 한국문학에 넓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7월 15일 (토) 김지하**

● 낭독 작품  
시집 『항토』  
(산정의 일기), (비나산), (성자동 연극의 날), (웅령에서), (황토길) 등 목포를 시작 모티브로 삼은 첫 시집.  
·해설 : 김진태 (목포대학교수)

이름 시는 1961년 남북학생회담 남북대표 3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명수배된 그가 학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도피하여 항만인부생활 등을 하며 착박한 이 땅의 현실과 억압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식을 담은 것. 그 무렵의 기억을 쓴 시문 (고행)에서 목포를 '내 시의 어머니, 굽어앉아 한이 맺힌 저 햇빛 황토의 언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8월 19일 (토) 차범석**

● 낭독 작품  
『학이여 사랑일레라』, 『육단어』  
상하도를 배경으로 쓴 학이여 사랑일레라.  
목포의 실존인물인 육단어를 소재로 쓴 작품  
·해설 : 정 철 (동신대학교수)

1963년 극단 '산하'를 창단하고 20년동안 대표(1963-1983)로 활동해 한국의 현대극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  
전후문학의 1세대이면서도 찬쟁이라는 주제에만 고착하지 않고 50여년 동안 철저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대적 서민실리를 추구한 작품을 썼다. 한국적 개성이 뚜렷한 사실주의 연극을 확립하는 데 공헌한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9월 16일 (토) 최하림**


● 낭독 작품  
『우리들을 위하여』  
목포의 모습이 잘 담겨진 첫 시집 『우리들을 위하여』, (환호) 등 초기 시의 주요 무대는 목포 대변을 바꿨다. 바다에 관련된 모든 시가 이곳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해설 : 최재환 (시인)


그의 시 세계는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적 사유도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적당히 혼동되어 있어 우리 시단의 균형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매일 셋째주 토요일 2시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리플렛-최종-결.jpg (714 hit/ 1.48 MB)** [미리보기](#)

 **리플렛-최종-안.jpg (626 hit/ 1.78 M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제10회 김우진문학제 및 12회김우진백일장대회 ...** | 다음글 **2017상반기교육수강생 모집**

***MokPo - Si***  
***Web Contents***

